

[새봄 기층 탐방]

길림시 조선족 정월대보름 율놀이... 깊은 민속문화의 향연



로년조 율놀이 시합의 한 장면

매년 정월대보름에 즈음해 길림시 조선족사회에서는 율놀이 열풍이 분다. 올해 정월대보름 율놀이 행사가 개최되기에 앞서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올해도 길림시 조선족 학교와 각 기관, 단체들마다 길림시 조선족 정월대보름 율놀이 행사에 파견할 팀을 미리미리 조직, 선발했다.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는 분회별로 여러개 팀을 파견할 예정이고 길림시조선족기업가협회도 료식분회팀, 정대국제병원팀 등 4개 팀을 파견하게 된다고 전했다. 양양의 우승팀인 길림시조선족중학교대표팀과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팀, 길림시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팀 등도 올해 율놀이 시합에서 재차 우승을 따내려고 서로 버는 분위기였다. 길림시조선족민족풍물아리랑회 회원들을 조직하여 지난 주말에 율놀이 시

합을 개최하였는데 시합에서 이진 우승팀을 선정하여 정월대보름 율놀이 시합에 파견하기로 했다. 2월 12일,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길림시 조선족 정월대보름 율놀이 행사가 길림시조선족중예술평단의 주최로 펼쳐졌다. 아침 일찍 오곡밥 조반상을 물리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길림시 조선족사회 각계인사들이 삼삼오오 길림시조선족중예술평단 다기능홀 행사장으로 몰려들었다. 현장은 민족복장을 갈아입은 율놀이 선수들과 구경꾼들로 왁자지껄, 율놀이 시합이 펼쳐지기도 전에 명절의 분위기로 후끈했다. 오전 8시, 길림시조선족중예술평단 본관 1층과 2층 홀에 깔아놓은 도합 14개 율놀이 판에서 동시에 율놀이 시합이 펼쳐졌다.

“모야!” 떠들썩한 율놀이 한판 승부에 덩실덩실 춤이 나온다... 올해 정월대보름 율놀이 행사는 청년조와 로년조로 나뉘어 시합을 진행했다. 율놀이 행사는 길림시조선족중소학교와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 길림시조선족여성협회, 길림시조선족기업가협회, 길림시아리랑합창단, 길림시조선족탁구동호회, 친구팀, 동창팀 등 길림시 조선족사회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56개 팀, 근 300명 선수가 참여했다고 주최측 길림시조선족중예술평단 리영일 부관장이 소개한다. 행사장 입구에는 사과나무 조선족 전통떡가게의 떡 시식, 판매 코너가 들어섰으며 1층 율놀이 현장에는 조선족 서예애호가 작품 전시장을 마련해놓았다. 북적이는 행사장 도처에서 현장 라

이브 방송을 하는 ‘왕홍’들의 분주한 모습도 보인다.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농경생활을 해오면서 자기들의 낙천적인 기상과 풍부한 정서로 흘러넘치는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창조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율놀이이다. 조선족 마을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농경사회에서는 그해 일년 농사를 마치고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 가족끼리 혹은 이웃들과 함께 율놀이를 즐겼다. 지난 세기 70년대말부터 길림시조선족중예술평단은 우리 민족 정서가 다분한 세시풍속인 율놀이를 길림지역 조선족사회의 정규적인 문화행사로 고착시키기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 율놀이 행사를 조직해왔다. 길림시조선족중예술평단의 꾸준한 노력과 조선족사회의 적극적인 호응, 참여하여 율놀이는 길림시와 성급 무형문화재에 이어 2021년에는 드디어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꽃을 피웠으며 매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열리는 길림시 조선족 정월대보름 율놀이 행사는 길림시정부가 주최하고 길림시조선족중예술평단이 주관하는 정부 공식 행사로 자리잡아 길림시 조선족들의 사랑을 한몸에 듬뿍 받고 있다. “전통 율놀이를 전승하고 보급하기 위해 해마다 길림시 조선족유치원, 조선족실업소학교와 조선족중학교에 심입해서 특강을 조직해왔죠. 그래서 길림시에서 율놀이는 대물림으로 어른, 아이 모두 즐기는 민속놀이가 되었어요. 대보름날뿐만 아니라 길림시조선족단오민속제 등 길림시 조선족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율놀이를 빼놓으면 섭섭하죠.” 이날 율놀이 행사의 재판을 담당 한 성급 율놀이 무형문화재 7대 전승인인 리상학선생의 소개이다. /차영국기자

길림시 대외무역 수출입액,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

2024년, 길림시의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67.3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하였다. 그중 수출액은 4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성장하였다. 수출입 무역 총액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길림시가 대외무역 경제의 잠재력을 깊이있게 발굴하여 이룩한 만족스러운 성과이다. 길림시가 '1개 중심, 4개 기지'를

구축하는 목표 달성에 조력하기 위해 길림시관은 고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치로 길림시의 대외무역 성장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해주었다. 길림시관은 통관 절차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고효율 통관 서비스 제도를 추진했다. 통관 효율을 높이고 기업 원가를 낮추는 등 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였다. 길림시관은 길림시 특색산업과 중

점기업의 실정에 비추어 일련의 지원 정책과 서비스 방안을 맞춤형으로 제작하였고 '록색통로'를 설립함으로써 수출입 절차에서 부딪히는 기업의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이 국제시장을 개척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였다. 길림시관은 '통계 + 분석'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길림시와 다국전자상거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기제를 구축

하여 출항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데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했다. 전국 일류 화학공업산업기지를 건설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길림시관은 길림석유화학회사가 전 성의 유일한 위험화학품 수출 시범기업으로 되는 데 조력하였으며 통관 검사 시간을 90% 이상 줄이고 매년 기업을 위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해주었다. /송화강넷

“내 고향의 소백산이 정말 많이 변했어!”

“평소 틱톡과 위챗 모먼트를 통해 늘 새롭게 변화하는 고향의 모습들을 담은 인기 동영상들을 볼 수 있었다. 화면 속 송화강변, 하남거리, 북산공원, 세기광장은 아주 친절하게 보이지만 또 기억 속의 장면과 다소 다르다고 느껴졌다. 이번 설명절에 고향에 와서야 고향의 관광지, 도시와 농촌의 면모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발견했다.” 길림시 소백산문화공원을 유람하면서 장흥민과 안해는 감개무량했다. 오전 9시가 막 지나자 소백산문화공원을 찾아 운동하고 산책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졌다. 기세 드높은 산문, 고풍스러운 건축물을 배경으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으며 관광객봉사센터의 조형이 각이한 많은 문화 창의 기념품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장흥민은 길림시 태생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후 천진에 정착했다. 안해는 천진 사람이고 아이는 현지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닌다. 평소에 일이 바빠서 장흥민은 장장 5년간 길림시에 와보지 못했다. 그사이 그는 뉴스나 동영상에서 고향 소식을 전해들었다. “고향을 떠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움이 더 커져요.” 이번에 장흥민과 안해는 소학교 2



학년 다니는 딸을 데리고 길림시에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설을 쇠고 고향의 관광지를 돌아보고 스키를 탈 계획이었다. 집에 도착한 후 장흥민은 우선 식구들을 이끌고 하남가를 한바퀴 돌다가 하남가에 위치한 백년전통가게 신홍원에 가서 유명한 찜판두와 탕수육 요리를 맛보았다. 이날 장흥민 일가는 소백산공원을 찾았다. 백설로 뒤덮인 수림을 지나 산꼭대기에 올라 대지를 내려다보

고 문물유적과 관광지 전시판을 일일이 눈여겨보면서 장흥민 일가는 흥겹게 산책로를 따라 공원을 한바퀴 걸었다. 이번엔 그들은 소백산공원 망제전(望祭殿)의 력사, 민족 문화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관광지 회복과 관광지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료해하게 되었다. 소백산은 길림시 4대 명산의 하나이며 력사문화도시인 길림시의 중요한 문화관광 랜드마크이기도 하다. 지

난해 소백산 환경정비 승격공사 1단계 사업이 완공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얼굴을 드러낸 소백산문화공원은 빠르게 관광 출척 명소로 부상했다. “예전에 소백산에 와봤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황량하여 관광지라고 할 수 없었을뿐더러 주변 주차도 아주 넓고 허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금 이곳은 깨끗하고 공중화장실, 벤취, 가로등 등 시설이 완비되어있고 넓은 주차구역도 건설되어있다. 관광지로 통하는 마을길은 매우 평탄하고 량쪽에 회색 담장이 통일적으로 건설되어있다. 도중에 만난 주민들과 말을 건네면 모두 웃음꽃을 피웠다.” “고향이 갈수록 아름답어지는 것을 보니 매우 자랑스럽다.” 장흥민의 감수이다. 지난 2년 동안 길림시에 적지 않은 문화박물관이 새로 건설되었다는 말을 들은 장흥민은 명절 기간에 가족을 이끌고 길림시 문화관광을 시작했다. 장흥민은 길해철도 길림총역 옛터, 장작상 관저, 덕승문, 조양문, 길림기계제조국 옛터 등 왕홍관광지를 찾아 구경하고 사진을 찍어 위챗 모먼트에 올려 자랑하면서 더욱 많은 외지 사람들이 길림시를 료해하고 길림시로 관광을 오도록 홍보했다. /송화강넷

스노보드 장애인 추격 월드컵 북대호에서

일전, 2024-2025 시즌 국제스키미트스노보드련맹 스노보드 장애인 추격(障碍追逐) 월드컵 북대호 경기가 북대호스키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길림시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노보드 장애물 추격은 1990년대에 시작된 스노보드 스피드 종목 중 하나로 2006년 포리노(都灵) 동계올림픽부터 정식으로 동계올림픽 종목이 됐다. 이번 대회는 국제스키미트스노보드련맹에서 주최하고 중국스키협회, 길림성체육국, 길림시정부에서 주관, 길림성체육국 설상운동관리센터, 길림시방설시험관리위원회, 길림시체육국에서 협찬했다. 캐나다, 독일,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19개국의 84명 선수가 참가했다. 이 종목은 우리 나라에서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이번에 우리 나라 선수 3명이 경기에 참가했는데 그중 방저원(逢赧源)은 길림시 선수이다. 경기 코스는 북대호스키휴양지의 기존 지형을 기반으로 건설되었는데 총길이가 1,000미터이고 너비가 40미터이며 랙차가 140미터 이고 전방 경사도가 14%이며 점프대, 파도길, 절벽, 반벽(半壁) 등 장애물을 포함한다. 코스와 가파른 정도는 캐나다 퀘벡 세인트 앤 마운틴 스키장과 비슷하며 마지막 구간은 리스토 중심 지역에서 끝난다. 이번 시즌 국제스키미트스노보드련맹 아시아 경기 일정의 중요한 경기장으로서 북대호의 경기 성적은 선수들의 승점 순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부 선수들은 밀라노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경기를 특히 중시, 그만큼 경기장 대결도 더욱 치열했다. 선수는 고속 활주중에 각종 장애

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평균 시속은 80~90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운동은 아슬아슬하고 자극적이며 관상성이 매우 강한 설상 경기 종목으로서 운동선수의 속도와 기교를 시험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순발력, 균형력에 대해 극히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대회 심판장 왕남은 종목의 특징을 소개할 때 스노보드 장애물 추격은 주로 활주 속도를 겨루는바 동작 자세의 형점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에 국제스키미트스노보드련맹은 '원스톱 더블 매치'(一站双赛) 모델을 채택했다. 1월 31일, 첫 경기의 예선을 거쳐 남자조 상위 32명과 여자조 상위 16명 선수가 진급했다. 2월 1일에 결승전을 진행하였는데 캐나다의 그랑딘 엘리엇, 오스트랄리아의 하메르 알렉산드로, 프랑스의 수르제 멀린이 남자조 상위 3위를 차지하였다. 영국의 뱅스 샬럿, 이탈리아의 모울리 미켈라, 프랑스의 카스타 리아가 각기 여자조 1, 2, 3위를 차지했다. 두번째 경기의 예선과 결승전은 2월 2일 한날에 열렸다. 그랑딘 엘리엇, 뱅스 샬럿은 첫번째 경기의 우승에 이어 다시 남녀조 우승을 차지했다. 두 대회 더블 챔피언인 그랑딘 엘리엇은 경기후 인터뷰에서 길림시는 그에게 행운의 땅이라며 이곳에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 여자 선수 웅청람은 첫 경기구 경기에서 결승에 올랐다. 두번째 경기구 경기에서 길림시 선수 방저원은 좋은 발휘로 웅청람과 함께 여자부 결승전에 진출하였으며 최종 방저원이 11위, 웅청람이 16위를 차지하였다. /송화강넷

전국 학교 빙설운동 계열 경기 길림시서



2월 10일, 2024-2025 전국 학교 빙설운동 계열 경기 길림시 송화호스키장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행사는 중국학생체육련합회가 주최하고 길림성교육청이 주관했다. 북경, 상해, 강서, 사천, 중경 등지의 568개 학교의 천명 가까이 학생이 참가했다. 행사는 중국 중학생 알파인스키 선수권대회, 중국 중학생 스노보드 선수권대회, 중국 소학생 알파인스키 겨울 캠프, 중국 소학생 스노보드 겨울 캠프 등 4개 시리즈로 진행됐다. 이날 중국 중학생 알파인스키 선수권대회와 중국 소학생 알파인스키 겨울 캠프가 두 코스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선수들은 눈길을 누비며 뛰어난 스키 기술을 선보였다. 내몽골 오해시 해발만구제 2완전소학교 학생 장영이는 소학교 여자 병조 3위를 차지했다. 경기후 장영이는

“이곳의 코스는 매우 좋고 사람들이 매우 열정적”이라며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길림시를 소개해 그들도 이곳에 놀러 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8일, 습근평 총서기는 길림성을 시찰할 때 생태환경보호와 녹색저탄소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빙설, 자연풍경, 민족풍토 등 특색자원을 리용하여 관광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빙설운동은 빙설경계와 함께 상생하고 서로 뒤받침한다. 길림성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2024-2025 빙설시즌 전국 교육계통 빙설운동 계열 경기중 참가자가 가장 많고 참가 규모가 가장 큰 대회”라며 “광범위한 참여로 전민 빙설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3억명이 빙설운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강넷